

애착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 인지적 변인을 중심으로 -

김 선 희* 오 경 자 박 중 규 이 은 정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인제대 일산백병원
신경정신과 임상심리학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애착유형의 개인차를 알아보고, 각 유형과 심리적·인지적 특성간 관계에 대해 조사하였다. 36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애착유형과 애착형성의 질에서 유의한 개인차가 나타났으며 애착유형에 따라 각기 상이한 인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형 집단은 애착관계 형성시 높은 의존가능성과 친밀성을 보인 반면, 회피형 집단은 안정형 집단에 비해 낮은 의존가능성을 보였으며, 불안-양가형 집단의 경우 애착관계에서 경험하는 불안이 타 집단에 비해 높았다. 세 집단은 관계신념차원중 친밀성신념과 개성신념에서 그리고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소재에서 집단차를 보였다. 귀인양식에서 유의미한 집단차가 나타났는데, 불안-양가형 집단이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긍정사건을 안정적인 요인에 귀인하지 않았으며 부정사건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요인에 귀인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부정사건에서는 보다 총체적 원인에 귀인하였다. 본연구결과의 시사점과 제한점, 앞으로의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성인기 애착유형, 관계신념, 자아존중감, 통제소재, 귀인양식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 선 희 /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연세대학교 유역경기념관 206호
심리학과 임상심리연구실 120-749 / FAX : 02-393-9432 / E-mail: babyblue25@harmail.net

애착이론은 병인론, 체계이론, 정신분석으로부터의 통찰에 근거한 인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관한 통합 이론이다(Ruiter, 1994). 이는 영아와 양육자가 신체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도록 하는 행동적, 정서적반응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으며(Bowlby, 1969), 영아-양육자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발달 사이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모델로 제공된다. 애착이란 특정한 개인에 대한 애정적 유대로서 애착연구의 초기에는 영아와 양육자 사이의 정서적 유대관계만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개인의 전생애동안 어머니외의 어떤 사람과도 형성할 수 있는 정적 유대로 인식된다(장휘숙, 1997).

Bowlby(1969)는 유아는 “애착행동적 체계”를 타고 났다고 말하면서 이를 통해 한 명 이상의 보호적인 양육자에게 충분한 근접성이 보충되며 따라서 생존도 보장된다고 보았다. 보울비가 애착감정과 행동의 복잡한 집합체라고 불렀던 애착시스템은 유아가 엄마와 가까워지는 것을 유지하게끔함으로써 유아를 보호하도록 진화되어온 것으로 보인다(Hazan & Shaver, 1987). 보울비와 여러 연구자들은 유아가 건강하고 기민하고 무서움이 없을 때, 그리고 엄마가 존재할 때, 환경을 탐색하고 숙달하는 것과 아울러 다른 가족구성원 및 타인들과 친화적인 접촉을 형성하는데 흥미를 보인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를 일컬어 엄마를 안전기지(secure base)로 사용한다고 말한다(Hazan & Shaver, 1987).

아동과 양육자 사이의 정서적 유대인 애착의 결과는 아동이 자기개념과 사회적 세상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은 양육자가 보살핌을 주고 반응적인 사람인지의 여부, 그리고 자기가 보살핌과 관심을 받을만한 존재인지의 여부에 대한 신념과 기대를 포함하는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발달시킨다. 즉 보울비(1969, 1973)는 아동은 그의 애착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정신표상(mental representation) 또는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한다고 제안한다. 이들 작동모델은 상호작용적 연쇄(sequences)의 정신표상이고 관계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며 미래의 상호작용 행동을 좌우한다. 자

기와 타인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 신념, 목표로 구성되어 있는 작동모델은 개인으로 하여금 미래의 결과를 예견하고 계획할 수 있게 하고 대인관계적 상호작용에서의 사고, 감정, 행동을 지시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어떻게 지각, 해석하고 이에 대해 반응할지 안내한다고 할 수 있다(Pietromonaco & Barrett, 1997). 뿐만 아니라, 내적 모델은 주의, 정보처리, 의사결정과 같은 중요한 인지 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적 모델 그 자체가 경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Ruiter, 1994). 이러한 작동모델의 내재화는 인지행동이론에 의해 가정된 자기 그리고 대인관계도식이 형성되는 과정과 유사하다(Hammen, Paley, Burge, Davila, Daley, & Rudolph, 1995). 따라서 내적 작동모델은 이러한 신념과 기대와 일치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인지체계 또는 인지적 표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애착이 영아기와 아동기를 넘어 전생애동안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된다(장휘숙, 1997).

그러나 아동기동안 일차양육자와의 안정된 애착관계의 형성은 결코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Ainsworth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인생의 첫번째 해 동안 유아의 신호와 욕구에 대한 엄마의 민감성과 반응성이 중요한 선결조건이라고 말한다(Hazan & Shaver, 1987). Ainsworth, Blehar, Waters와 Wall(1978)은 모성적 민감성-반응성의 평정에 근거하여 애착의 질에서의 개인차를 성공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애착의 3가지 유형 “안정된(secure), 회피적(avoidant), 불안/양가적(anxious/ambivalent)”을 서술하였다.

세 가지 애착유형에 대한 기술에서, Ainsworth 등(1978)은 엄마의 접근가능성(accessibility)과 반응성(responsiveness)에 관한 유아의 기대에 관해 언급하였다. 이는 유아와 아동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주요 사회적 상호작용 파트너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inner working model)을 형성한다는 보울비의 주장과 부합된다. 애착관계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이 관계에서의 경험에 의해 형성되어지고 따라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지지만 보울비는 생애 초기에 형성된 내적 모델은 변화에 저항적인 경향이 있

다고 지적하였다. 이 모델안에서 통합된 기대들은 초기 그리고 그 후의 감정과 행동간의 연속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보울비에 따르면 작동모델과 작동모델의 영향을 받은 행동패턴들은 성격의 중심적 구성요소가 된다. 상황교차적 그리고 연령교차적 연속성에 대한 주장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유아기부터 초기 학령기동안의 장기종단연구들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관점은 지지되고 있다(Hazan & Shaver, 1987).

이렇듯 애착이론은 애착유형의 연속성을 가지고 자기와 관계에 대한 상호관련적 정신모델의 영향을 강조한다. 친밀한 관계와 심리역동과정에 관한 연구들은 Ainsworth의 영아기 애착양상(Ainsworth, 1978, 1989)과 병행의 입장에서 성인기 애착양상에 초점을 둔다. 애착이 낭만적 관계를 포함하여 성인기 유대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고찰이 증가하고 있고 (Morris, 1982), 최근들어 연구문헌들은 애착의 연속성에 관한 논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Feeney & Noller, 1990). 아울러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파트너가 서로에 대하여 믿고 있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여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며, 이것이 객관적 현실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Stenberg & Barnes, 1985). 애착유형의 연속성은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에 근거한 자기와 관계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inner working model), 즉 정신모델("mental model")의 지속을 통해 대부분 설명된다(Feeney & Noller, 1990). 따라서 인지적 요인들이 애착유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본다.

Hazan과 Shaver(1987)는 성인기 대인관계에 애착이론을 적용하면서 대인관계 경험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는 영아와 양육자 사이의 유대에 관한 Bowlby(1969)의 이론이 확장된 것이다. 그들의 이론적 작업은 유아와 성인기애착 사이의 강한 유사성을 이끌어냈다. 그들의 경험적 연구(1987)를 보면, 2개의 성인표본에 근거하여, 애착유형(단일한 자기보고식항목을 통해 측정)과 아동기 및 성인기 관계의 여러 측면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3가지 애착유형이 퍼져있는 정도(prevalence)가 유아

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보고된 것과 유사하였다. 아울러 상이한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애착역사(초기 가족관계의 지각), 정신모델에서 차이가 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Collins와 Read(1990)는 Hazan과 Shaver(1987)의 범주적 측정에 근거하여 성인기 애착유형차원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3가지의 애착차원은 가까워짐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친밀성), 타인에게 의존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의존가능성), 버림받거나 사랑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불안)이다. 그들은 이러한 애착차원과 자기, 타인에 대한 작동모델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면서, 애착차원이 자아존중감, 표현성, 타인에 대한 신뢰, 인간본성에 대한 신념, 사랑유형과 관계된다고 하였다.

안정적인 애착유형의 사람들은 대개 그들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데, 그들의 낭만적 관계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만족도와 적응도를 보고하며(Camelly, Pietromonaco, & Jaffe, 1994; Kirkpatrick & Davis, 1994; Simpson, 1990) 그들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갖는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보다 안정적으로 애착된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보다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사회상황에서 보다 확신에 차있고 자기주장적이다 (Collins & Read, 1990). 안정적인은 사람은 친밀감과 독립성 양자 모두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며 양자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회피적 애착유형의 사람은 친밀감을 덜 추구하며 개인적 정보의 노출을 꺼리고(Bartholomew & Horowitz, 1991; Feeney & Noller, 1990; Mikulincer & Nachshon, 1991), 그들의 낭만적 관계에 덜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Camelly et al., 1994; Collins & Read, 1990; Kirkpatrick & Davis, 1994; Simpson, 1990). 또한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방어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Mikulincer & Orbach, 1995; Fraley & Shaver, 1997). 회피적인 사람들은 스스로를 사회상황에서 덜 확신적이고 대인관계에 큰 관심이 없다고 여기나, 자기가치감이라던지 자기주장성은 높은 편으로, 그들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Collins & Read, 1990). 그러나 인간본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Bartholomew & Horowitz, 1991) 타인들은 대개 의존할만하지 않다고 여기는 편이다.

불안양가적 애착유형은 친밀감에 대한 강한 바람을 표현하고(Collins & Read, 1990; Feeney & Noller, 1990; Hazan & Shaver, 1987), 대인관계를 불만족스럽게 느끼며(Carnelly et al., 1994; Collins & Read, 1990; Kirkpatrick & Davis, 1994; Simpson, 1990). 낭만적 관계에 대해 보다 강한 감정과 정서적 기록을 보고하고(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보다 강한 정서적 표현을 보인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그러나 사회상황에서 자기확신과 자기주장성이 떨어지며(Collins & Read, 1990), 사람들은 자기가치감이 빈약하고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Collins & Read, 1990; Bartholomew & Horowitz, 1991). 타인에 대해서도 비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높은 수준의 사교성으로 인해 타인에 대해 낙관적 관점을 보이는 듯 하게 보일 수 있으나(Bartholomew & Horowitz, 1991), 안정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에 비해 타인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Hazan & Shaver, 1987). 인간본성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을 이해하기 복잡하고 어렵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Collins & Read, 1990).

질적으로 상이한 작동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성인들은 대인관계 경험(Carnelly, Pietromonaco, & Jaffe, 1994; 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Kirkpatrick & Davis, 1994), 정서적 경험(Bartholomew & Horowitz, 1991; Hazan & Shaver, 1987), 그들 자신과 타인(Bartholomew & Horowitz, 1991; Collins & Read, 1990)에 대한 총체적이고 회고적인 지각에서 차이가 난다. 애착의 작동모델은 온정성, 사교성과 같은 일반적인 대인관계적 특징들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어, 광범위한 맥락과 관계 전반에 걸친 반응에 영향을 끼친다(Pietromonaco & Barrett, 1997). 아울러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인과추론을 하는가에 관한

총체적인 개념이자, 각자의 행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 및 동기가 무엇이라고 믿고 있는가에 관한 중요한 개념인 귀인양식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Collins, 1996; Collins & Read, 1990)고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상이한 작동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 타인, 관계에 대한 일반적 이론이 다르다고 제안한다(Pietromonaco & Barrett, 1997).

성인이 보유하고 있는 작동모델은 부분적으로는 인생 초기에 형성된 작동모델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후에 중요한 관계에서의 경험이 합병된(incorporate) 결과로 볼 수 있다(Carnelly, et al., 1994; Hazan & Shaver, 1987). 아울러 다양한 유형의 성인기 정신병리와 성격특질 또한 성인기 애착과 강하게 연관된다(Mickelson, Kessler & Shaver, 1997)는 연구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성인기 애착관계는 영아-양육자 사이의 애착관계보다 더 복잡한 관계형성의 과정일 것이 분명하며 애착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정교화된 인지체계가 형성되어있을 것이다. 아동기와 마찬가지로 내적 작동모델은 성인들이 어떻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해석하고 이에 반응할지를 형상화시킨다. 성인기 애착에 관한 문헌들은 스스로의 애착을 어떻게 기술하는지에서 차이를 보이는 사람과 그들의 작동모델의 질이 상이한 사람들은 자기자신의 대인관계 경험, 그들 자신, 타인에 관한 포괄적 지각 또한 상이하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영아-양육자의 애착과 성인기의 애착이 병행한다고 가정하며 애착조직화의 양상에 따라 개인차가 있어서 개인이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양상에서 차이를 나타내리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인기 애착유형이 친밀한 관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이다(Davila & Bradbury, 1995).

그러나 국내에서는 성인기 애착유형에 따른 내적 작동모델과 인지적 특성의 상이성, 인지체계를 이루고 있는 하위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이한지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외국의 선행

연구결과들을 국내의 자료들과 비교하면서, 첫번째, 애착유형 접근의 유용성을 가정하고 각 집단에 따라 애착형성의 질이 상이한지 검증해본다. 둘째로, 애착유형에 따라 자기에 대한 평가와 관계에 대한 신념, 내외통제소재, 귀인양식을 통해 평가되는 내적 작동모델이 상이한지 알아본다. 만일 상이하다면, 특정 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개인들은 특정 인지요인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상이한 내적 작동모델의 특정한 측면들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내적 작동모델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하는 것으로 입증된 관련척도들을 사용한다. 그 중 하나가 자아존중감으로 이는 자기(self)에 대한 작동모델의 구성요소에 초점을 맞춘 척도이다. 이와 함께 타인과의 다양한 대인관계경험과 그 경험의 특성을 통제하는 개인의 측면을 반영하는 관계신념에 관한 척도, 행동과의 상관이 높아서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언하는데 유용하며 친화적 맥락과 관련된 인지요인으로 보고된 내외통제소재, 다양한 실제상황을 해석하는 인과분석과정을 통해 정서반응과 행동을 이끄는 인지요인인 귀인양식과 같은 일반적 인지적 변인을 측정하는 척도들을 포함시켰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의 Y대와 강원도의 H대에 재학중인 남녀대학생 365명이었고 이들에게 강의시간에 설문지를 집단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애착유형에서의 개인차, 애착관계의 질, 부모와의 친밀도, 자아존중감, 관계신념, 통제소재, 귀인양식을 총체적으로 조사하여 보겠다.

도 구

애착관계의 유형에 대한 평가. 자기보고식 애착유

형척도(Attachment style measure : Hazan & Shaver, 1987)는 서로 다른 관계형성의 특징을 기술하는 4가지 항목 중 자신에게 가장 잘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항목 한가지만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3가지 유형은 각각 '안정된(secure) 유형', '회피적(avoidant) 유형' 그리고 '불안한/양가적(anxious/ambivalent)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안정적 애착은 친밀한 관계형성에 대해 안정적이며 회피적 유형은 타인과 가까워지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물론 타인이 자신에게 지나치게 가까워지려고 할까봐 걱정한다. 불안양가적 유형은 타인과 지나치게 많이 가까워지기를 원하나 자신이 원하는 만큼 타인들이 자신과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동시에 타인이 자신을 보살펴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애착관계의 질에 대한 평가. 각 애착유형에 따라 그 기저의 핵심적 구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각 애착유형이 대인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애착관계의 질에 대해 평가하였다. Collins와 Read(1990)의 성인애착척도(Adult Attachment Scale:AAS)는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검사로서 Hazan과 Shaver의 3분주 척도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 Collins와 Read는 Hazan과 Shaver가 개발한 진술문을 문장단위로 쪼개어 각 유형마다 5개씩 15개의 문항으로 만들고 자신이 애착대상을 필요로 할 때 얼마나 반응적이라고 믿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을 하나씩 첨가하여 총 18개의 문항을 구성했고 5점 척도로 되어있다. 본척도에서는 대인관계 차원을 애착-의존(dependence), 애착-친밀(close), 애착-불안(anxious)의 3차원으로 분류하여 측정한다. 애착-의존척도는 내가 필요로 할 때 상대방이 이용가능(available)하고 의존할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며, 애착-불안척도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거나 버림받는다는 것에 대해 불안하게 느끼거나 두려워하는 정도를, 애착-친밀척도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짐(closeness)과 친밀(intimacy)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는 정도를 측정한다. 애착-의존척도는 상대방에 대한 보다 일방향적인 믿음의 정도인 반면, 애착-친밀척도는 나와 상대방의 상호작용적 특징에 보다 초점이

맞춰진 이방향적인 성질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다.

관계신념에 대한 평가. Fletcher와 Kininmonth(1992)의 관계신념척도(Relationship Beliefs Scale:RBS)를 한국 실정에 맞도록 번역, 수정하여 전영민과 박영숙(1997)이 제작한 한국판 관계신념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영민 등(1997)의 연구결과, 한국판 관계신념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지지되었다. 본척도는 친밀한 애정관계를 성공으로 이끄는 요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신념분야들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있다. 요인분석과정을 통해 4개 신념요인이 추출되었다. ‘친밀성(intimacy)’은 대인 태도 및 상호작용에 관한 신념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친밀성 발달(존중, 대화, 지지, 수용, 사랑, 타협 등)과 관련되며, ‘외적 요소(external factors)’는 자식이나 경제력과 같이 외적인 요인의 중요성과 관련된 신념범주들이 포함된다. ‘열정(passion)’은 성과 활력에 관한 신념이 결합된 형태로서 열정의 중요성에 관한 신념이다. ‘개성(individuality)’은 독립성 및 형평성 신념이 결합된 신념이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평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전체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검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높은 신뢰도를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식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각각의 문항들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는가를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최하 10점에서 최고 40점까지이며, 점수는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통제소재 평가. Rotter(1966)가 제작한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Scale을 한국 실정에 맞게 번역, 수정하여 차재호, 공정자, 김철수(1973)가 제작한 ‘한국판 내외통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으로, 각 문항은 2개의 답지 즉, 내적 통제문항과 외적 통제문항의 한 쌍으로 되어있다. 이 중 6개 문항은 허구척도로 15개 문항만을 채점한다. 외적 문항에 표했을 때 1점씩 가산하여 0점(가장 내적 통제)에서 15점(가장 외적 통제)의 점수분포를 가진다.

귀인양식에 대한 평가. Petreson, Semmel, von

Baeyer, Abramson, Metalsky와 Seligman(1982)이 제작한 귀인양식 질문지(Attributeal Style Questionnaire:ASQ)를 이영호(1993)가 변안하고 시나리오를 재구성하여 사용한 것으로 12개의 가설적 상황에 대해 그 가능한 원인을 쓰고 내부, 안정성, 총체성 차원에서 귀인평정을 하도록 하였다. 12개의 상황중 절반은 긍정적 사건, 나머지 절반은 부정적 사건이며, 긍정, 부정 각각에서 대인관계사건과 성취관련 사건을 반반씩 구성하였다.

결 과

1. 각 척도들간의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 포함된 각 척도들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표 1). 애착척도의 각 하위척도인 애착-의존, 애착-불안 및 애착-친밀이 자아존중감 점수와 각각 $r=.18(p<.01)$, $r=-.36(p<.01)$, $r=.37(p<.01)$ 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가까워짐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고 타인을 의존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보다 높은 자기가치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애착척도의 불안차원이 높을수록 자기가치감은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귀인양식중 긍정사건에 대한 안정성 귀인은 애착척도의 각 하위척도와 각각 $r=.13(p<.05)$, $r=-.13(p<.05)$, $r=.19(p<.01)$, 부정사건에 대한 안정성 귀인은 각각 $r=-.16(p<.01)$, $r=.19(p<.01)$, $r=-.14(p<.01)$, 그리고 부정사건에 대한 총체성 귀인은 애착-의존, 애착-불안 하위척도와 각각 $r=-.13(p<.05)$, $r=.26(p<.01)$ 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애착형성의 질이 각기 상이한 귀인양식과 관련됨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2. 애착유형에 따른 심리적·인지적 특성 비교

3가지 애착유형 즉, 안정형, 회피형, 불안-양가형 집단에 따른 심리적·인지적 특성 변인들의 점수를 비교하고자 일원변량분석과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1. 척도별 상관분석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애착-의존	1.00	-.17**	.32**	.13*	.00	.13*	.04	.18**	-.13*	.01	.13*	.01	.09	-.16**	-.13*
2. 애착-불안	1.00	1.00	-.22**	-.03	.07	-.03	-.11*	-.36**	.10	-.09*	-.13*	.07	.05	.19**	.26**
3. 애착-친밀	1.00	1.00	.18**	.09	.09	.14*	-.03	.37**	-.11*	.13*	.19**	.09	.00	-.14**	-.07
4. 친밀성	1.00	1.00	.49**	.10	.49**	.57**	.41**	.16**	-.10	.19**	.33**	.31**	.05	-.05	.13*
5. 외적요소	1.00	1.00	.46**	.28**	.46**	.28**	-.04	.07	.08	.12	.21**	.21**	.01	.05	.17**
6. 열정	1.00	1.00	.22**	.11*	.22**	.11*	.02	.15**	.15**	.25**	.25**	.19**	.02	-.10	.03*
7. 개성	1.00	1.00	.13*	.02	.13*	.02	.17**	.17**	.21**	.21**	.22**	.22**	-.02	.00	.10*
8. 자아 존중감	1.00	1.00	.24**	.24**	.24**	.24**	.24**	.24**	.39**	.39**	.20**	.20**	.11*	-.21**	-.21**
9. 통제소재	1.00	1.00	-.12*	-.14**	-.12*	-.14**	-.14**	-.14**	-.14**	-.14**	-.04	-.04	-.12*	.12*	.11*
10. 긍정사건내부귀인	1.00	1.00	.49**	.37**	.49**	.37**	.37**	.37**	.37**	.37**	.37**	.37**	.08	.02	.02
11. 긍정사건안정귀인	1.00	1.0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05	.01	.00
12. 긍정사건총체귀인	1.00	1.00	1.00	.08	1.00	.08	1.00	.08	1.00	.08	1.00	.08	.03	.41**	.41**
13. 부정사건내부귀인	1.00	1.00	.13*	.30**	.13*	.30**	.13*	.30**	.13*	.30**	.13*	.30**	1.00	.13*	.30**
14. 부정사건안정귀인	1.00	1.00	1.00	.52**	1.00	.52**	1.00	.52**	1.00	.52**	1.00	.52**	1.00	.13*	.30**
15. 부정사건총체귀인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p < .001$, ** $p < .01$, * $p < .05$

표 2. 애착유형 집단의 심리적 특성 비교.

	1. 안정형 (208명)	2. 회피형 (116명)	3. 불안-양가형 (41명)	F	집단비교
애착관계의 질					
애착-의존	3.20(.53)	2.83(.57)	3.00(.47)	17.62***	1/2
애착-불안	2.49(.57)	2.72(.59)	3.23(.51)	30.17***	1/2, 1/3, 2/3
애착-친밀	3.55(.48)	3.03(.57)	3.25(.57)	37.62***	1/2, 1/3, 2/3
친밀도 평정					
아버지	3.79(.83)	3.46(.98)	3.38(.86)	6.71***	1/3
어머니	4.24(.68)	3.96(.79)	4.18(.68)	5.30**	
자아존중감					
	3.03(.48)	2.80(.54)	2.61(.50)	16.55***	1/2, 1/3

* $p < .05$, ** $p < .01$, *** $p < .001$,

우선 애착유형 집단별로 애착형성의 질, 부모와의 친밀도, 자아존중감을 포함하는 심리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표 2). Collins와 Read(1990)가 제안한 애착관계 질의 세 가지 하위 척도 점수의 경우, 애착-의존, 애착-불안, 애착-친밀 차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2,363)=17.62, p<.001$; $F(2,363)=30.17, p<.001$; $F(2,363)=37.62, p<.001$). 사후검증 결과, 애착-의존 수준에서는 안정형집단과 회피형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애착-불안 수준에서는 불안양가형, 회피형, 안정형 집단순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애착-친밀 수준에서는 안정형, 불안양가형, 회피형 집단순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략적인 경향성에 대한 비교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집단의 특성을 변별해 주기에 타당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안정형 집단의 경우, 애착관계 형성시 의존가능성이 더 높고, 친밀성의 질이 높은 반면, 회피형 집단의 경우 의존가능성이 안정형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고, 불안-양가형 집단의 경우 애착관계에서 경험하는 불안이 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 세 집단이 애착관계 형성시 유의한 수준에서 상이한 특성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피험자들로 하여금 부모와의 친밀도를 5점 척도상

에 평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알아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차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F(2,363)=6.71, p<.001$) 안정형 집단이 불안양가형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어머니의 경우($F(2,363)=5.30, p<.01$) 회피형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자아존중감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차가 나타났는데($F(2,363)=16.55, p<.001$), 안정형 집단이 회피형, 불안양가형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자존감 점수를 보였다.

다음으로, 애착유형집단별로 인지적 변인들의 점수들을 비교하여 보았다(표 3). 관계신념 척도의 네 가지 신념 요인의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친밀성 요인과 개성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차가 나타났다($F(2,363)=4.20, p<.05$; $F(2,363)=5.39, p<.01$). 친밀성요인에서, 안정형 집단이 타 집단들에 비해 유의하게 강한 친밀성신념(신뢰, 존중, 대화, 지지, 수용, 우정, 타협.....과 같은 하위척도 포함)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개성 요인에서는 불안양가형 집단이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얻었다. 이 요인에서는 회피형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회피형 집단은 독립성 및 형평성에

표 3. 애착유형집단의 인지적 특성 비교.

	1. 안정형 (208명)	2. 회피형 (116명)	3.불안-양가형 (41명)	F	집단비교
관계 신념					
친밀성	4.71(.51)	4.56(.55)	4.52(.66)	4.20*	
외적요소	4.11(.56)	4.03(.54)	4.19(.55)	1.75	
열정	4.14(.68)	3.97(.67)	4.00(.72)	2.52	
개성	4.43(.65)	4.50(.69)	4.10(.78)	5.39**	1/3, 2/3
통제 소재	5.52(2.34)	6.22(2.54)	5.51(2.38)	3.28*	
귀인 양식					
내부귀인-긍정사건	4.99(.66)	4.92(.73)	4.86(.72)	.86	
안정성귀인	5.37(.71)	5.30(.74)	4.96(.65)	5.93**	1/3, 2/3
총체성귀인	5.42(.76)	5.36(.82)	5.32(.75)	.35	
내부귀인-부정사건	4.67(.79)	4.53(.77)	4.74(.67)	1.63	
안정성귀인	3.95(.89)	4.22(.87)	4.27(.62)	4.85**	
총체성귀인	4.51(.98)	4.51(1.03)	5.03(.73)	5.11**	1/3, 2/3

* $p < .05$, ** $p < .01$, *** $p < .001$.

대해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가치를 두는 반면, 불안양가적 집단은 이 신념을 그다지 고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통제소재 또한 통계적 유의도한 집단차가 나타났다 ($F(2,363)=16.55, p < .05$). 점수를 비교해 볼 때, 세 집단중 회피형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더 외부통제소재를 지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유형과 귀인차원별로 집단간 차이를 알아본 결과, 긍정사건에 대한 안정성 귀인차원과 부정사건에 대한 안정성, 총체성 귀인 차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차가 나타났다($F(2,363)=5.93, p < .01$; $F(2,363)=4.85, p < .01$, $F(2,363)=5.11, p < .01$). 즉 불안양가형 집단은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긍정사건을 안정적인 요인에 귀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보다 안정적인 요인에 귀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사건에 대한 총

체성 차원에서는 불안양가형 집단이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어, 부정적인 사건을 보다 총체적인 원인에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애착유형에 따라 어떤 개인차가 있으며 각 유형에 따라 애착관계의 질이 어떠한지, 내적 작동모델에서 차이가 나는지, 인지체계의 내용은 어떻게 상이한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애착유형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며 각 유형에 따라 애착관계의 질에서도 유의미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이성은 개인이 자신과 타인들, 대인관계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자기 상이한 신념양상, 인지체계와 연계되어있다. 이는 외국의 선행 연구결과들과 일관되며, 애착이론의 타당성을 뒷받침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정형 집단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보다 안정되고 적응적인 인지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불안양가형의 사람들일수록 보다 취약성이 드러날 소지가 있는 인지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은 각기 상이한 관계신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애착유형에 따라 관계에 대한 신념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기존의 외국 선행연구의 결과(Feeney & Noller, 1990)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세 집단 중 안정형 집단의 사람들일수록 대인관계시 신뢰, 존중, 대화, 지지, 수용, 우정, 타협과 같은 친밀성신념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정형과 회피형의 사람들에 비해 불안양가형 집단의 사람들일수록 대인관계시 독립성과 형평성을 포함하는 개성신념을 중시하지 않았다. 본연구에서 측정된 관계신념들은 친밀한 애정관계를 성공으로 이끄는 요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신념분야이고, 관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적 신념(causal beliefs)의 속성을 지니며 관계행동과 관계만족도를 매개하는 요인인 것으로 입증된 점(전영민과 박영숙, 1997)을 고려할 때, 애착유형에 따라 각기 상이한 대인관계경험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관계의 상호작용 및 심리역동적 측면에서 관계신념의 역할 그리고 관계신념의 상이성의 정도 및 적합성에 관한 연구가 행해져야 하겠다.

애착유형에 따라 자아존중감에서도 유의미한 상이성이 나타나, 기존의 외국 선행연구에서의 결과들(Collins & Read, 1990; Feeney & Nollar, 1990; Bartholomew & Horowitz, 1991; Mickelson, Kessler, & Shaver, 1997)과 일관된 결과를 산출하였다.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의 자기자신에 대한 평가로서 일상의 대화나 성격 면에 있어 개인의 사회적 행동과 역할을 결정하는 중심특성(Watkin, 1978)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Rosenberg, 1979). 본 연구결과, 안정형의 사람들이 회피형과 불안-양가형 사

람들에 비해 보다 높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타인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에 대해 안정적으로 느끼는 사람일수록 자기가치감 또한 높으며 관계에 대해 회피적으로 대응하거나 또는 불안감이 많고 양가적인 사람일수록 자기가치감도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애착유형에 따라 통제소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의 연구들을 볼 때, 성인기 애착유형과 통제소재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외국의 연구는 없으며(Mickelson, Kessler, & Shaver, 1997),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Mickelson, Kessler와 Shaver(1997)는 그들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내외통제소재, 외향성(extroversion),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4가지 특질을 포함하는 성격특성들이 각 애착유형을 예견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통제소재는 성취맥락 뿐 아니라 친화적(affiliative) 맥락(Lefcourt, Martin, Fick, & Saleh, 1985), 가까운 관계행위(Miller, Lefcourt, Holmes, Ware, & Saleh, 1986)와 관련된 것이다. 성격의 차원중 내외통제성이라는 인지양식은 사회학습이론에 토대를 두고 창안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의 다른 성격변인이나 행동과의 상관이 높아서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언하는데 유용하다고 보고되었다(Lefcourt, 1966; Rotter, 1966). 외적 통제인 사람과 내적 통제인 사람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환경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방식들에 있다고 할 수 있다(이상희, 1993). 행동에 뒤따르는 강화를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면, 환경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게 될 것이다. 자기 스스로가 운명의 지배자라는 신념을 가진 내적 통제인 사람들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찾아나서는 것으로 보인다(Davis & Phares, 1967).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정보의 습득과 이용에서도 외적 통제자들보다 뛰어난을 보여준다(Rotter, 1966; Lefcourt, Martin, & Saleh, 1984). 또한 외부에 통제소재가 있는 사람일수록 환경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거나 문제해결기술을 요하는 갈등상황에서 관계중

진을 위해 필요한 개인적 책임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Miller, Lefcourt, Holmes, Ware, & Saleh, 1986).

본 연구결과, 안정형과 불안양가형 집단보다 회피형 집단의 사람들이 강화를 가져다 주는 사상이 외적 요인인 행운, 우연 혹은 강력한 다른 사람들의 통제하에 있다고 지각하는 외부통제소재를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회피적인 사람일수록 대인 갈등 및 문제의 해결, 관계증진을 위해 필요한 적극성이나 책임감을 발휘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회피형 집단의 대인관계 양상 및 관계만족도를 조사할 경우, 통제소재의 효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한편 내적 통제자는 일관된 반응체계를 습득하고 있고 개인적 통제감이 많아서 불안도 적고 더 적응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Strickland, 1974; Phares, 1976)이지만, 극단적인 내적 통제자는 개인적 책임감에 압박적으로 매달리기 때문에 심한 죄의식을 느끼기 쉬우므로 부적응적일 수 있다. 본연구결과, 안정형집단과 불안양가형 집단이 통제소재에서 평균점수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보다 많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깊이있는 연구가 행해져야하겠다 즉 향후 연구에서는 상이한 애착유형과 내외통제소재의 강도, 정서적 적응 사이를 매개하는 요인 및 상황의 잠재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귀인이론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 인지과정에서 어떻게 발생되고 지속되며 악화되고 치료되는가 하는 것을 다룬 많은 치료접근법 중의 하나이다(Fiske & Taylor, 1984). 본 연구에서 애착유형에 따라 귀인양식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애착유형에 따라 귀인양식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외국의 선행연구결과(Collins, 1996; Collins & Read, 1990)와 일관된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 불안양가형 집단의 사람들은 타집단의 사람들에 비해 긍정적인 사건을 안정적인 요인에 귀인하지 않았으며, 부정적인 사건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요인에 귀인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부정적인 사건을 보다 총체적인 원인에 귀인하였다. 귀인의 안정성차원은 원인의 가변성에 관한 것이며

성공과 실패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울러 안정성차원은 정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안정성과 연계된 대표적 정서가 절망감이라는 점(Weiner, 1985)을 고려할 때, 불안양가형 집단의 사람들은 보다 쉽게 부정적 정서상태가 될 수 있는 취약한 인지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더욱이 부정적인 사건에서 보다 총체적으로 원인으로 귀인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모든 상황 전반에 걸쳐 이내 일반화시키는 과극적 사고가 쉽게 활성화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애매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정서반응과 행동은 인과분석에 의해 상황을 해석한 결과이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은 부정적인 사상 그 자체보다 부정적인 사상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된다(Fiske & Taylor, 1984)는 점을 고려할 때, 불안-양가형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귀인양식에서의 특성은 그들이 대인관계에서 보다 부정적인 정서반응과 대응행동을 나타낼 소지가 크다는 것을 예측하게 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피검자에게 부모와의 친밀도를 각각 평정하게 한 결과, 각 애착유형에 따라 부모와의 친밀도 보고에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다. 외국의 선행연구결과들(Mickelson, Kessler, & Shaver, 1997; Collins & Read, 1990)을 보면,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회고적 지각과 애착유형간 강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안정적 애착유형은 부모에 대한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표상과 그리고 회피적 애착유형은 냉담하고 거부적인 표상과 관련되며, 불안-양가적 애착유형은 긍정적, 부정적 표상의 혼재와 관련된다고 제안한다(Mickelson, Kessler, & Shaver, 1997). Collins와 Read(1990)는 그들의 연구결과, 부모와의 관계를 거부적이지 않고 온정적이라고 지각한 사람들일수록 타인은 의존할만하다고 느끼며 버림받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덜 불안해하며,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반응적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가까워짐과 친밀함에 대해 보다 편안하게 느낀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양가적이고 비일관적인 어머니의 양육은 낮은 의존성점수와 높은 불안점수와 연관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애

착이론과 일관되게,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기억들은 성인기에서 안정감에 대한 개인의 느낌과 관련된다 고 말하였다. 본 연구결과, 안정형 집단의 사람들이 타집단의 사람들에 비해 부, 모 모두와 높은 친밀도를 보고하였다. 불안-양가형 집단의 경우, 아버지와는 낮은 친밀도를 보고하였으나, 어머니와는 안정형 집단의 사람들과 유사한 수준의 친밀도를 보고하였다. 회피형 집단의 경우, 다른 두 집단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부모와의 친밀도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매우 대략적인 조사를 통한 결과이므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 친밀도에 대한 지각 및 양육방식과 애착형성의 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화된 연구가 행해져야 하겠다.

종합해보면, 성인기 애착유형에 따라 각기 상이한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작동모델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개념, 사회적 사상 및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들을 여과하고 이해하는 역할을 행하는 중요한 지식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애착유형에 따라 상이한 내적 작동모델을 지닌 개개인들은 그들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대와 신념들과 일관되게 혹은 이를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사상을 해석할 소질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지적해 보면, 우선 성인기 애착유형 집단이 대학생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앞서 기술하였듯이, 제한된 표집내에서의 본 연구결과가 다양한 표집을 대상으로 행해진 외국의 여러 선행연구결과들과 일관된 결과를 산출한 것으로 미루어,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나온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표집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애착이론의 유용성을 보다 공고히 하는 작업이 있어야겠다.

두 번째 제한점은 본 연구가 횡단적, 회고적 연구이므로 애착유형 형성의 원인에 대해 추론만이 가능했고 애착유형과 인지적 특성간 상호관련성을 검증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향후 종단적 연구를 통해 애착유형 형성의 원인 및 관련 요인들, 이의 발

달과정을 보다 명확히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애착유형형성과 가족관계, 가족내 역동, 정신병리간 관계 및 상호 영향력 등을 밝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장기추적 연구가 행해져야겠다.

아울러, 각 애착유형집단을 대상으로 각 인지변인들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하는지, 각각의 설명력이 어떤지, 혹은 이 변인들이 자기개념, 자아존중감과 같은 자기에 대한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각 애착유형에 따라 상이한 내적 작동모델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인지적 변인들이 가지는 영향력 및 중요도가 상이하고 이들의 상호작용과 역동이 다를 경우, 이러한 점들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심리치료를 중요한 함의를 지닐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문제들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관계만족도와 실제적 관계양상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개인의 내적 작동모델을 조사하는 것에 더하여 그러한 인지체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실제적 행동양상으로 드러나는지, 또 인지체계와 연관된 정서반응이 어떻게 상이한지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애착유형에 따른 개인의 전체적인 적응양상을 명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한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회피형 사람들의 내적 작동모델의 역할과 정서반응에 대한 것이다.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회피형의 사람들은 타 애착유형의 사람들과는 달리 갈등상황이나 상실, 분리의 경험에서 정서적 고통을 보고하지 않으며(Collins, 1996) 특징적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애착관련-스트레스를 표현한다(Fraley & Shaver, 1997). 여기에서 유력한 심리적 과정이 방어체계로, 성인기 회피성에 관한 정서적, 인지적 역동에 대한 빈약한 이해의 공백을 메우고자 애착관련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어과정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Fraley & Shaver, 1997). 더불어 애착행동의 조절을 중재하는 (mediating) 인지적 기체에 관한 가설에 대하여 그리

고 애착인지의 안정성과 관계만족도, 질, 과정 사이에 어떤 연합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겠다. 아울러 일반화된 작동모델과 보다 특정한 작동모델의 효과를 구체화하고 작동모델과 대인관계적 지각 그리고 행동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조사함과 더불어, 나 자신과 상대방 각각의 작동모델과 관계행동 사이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 이상희. (1993). 내-외향성 및 통제소재와 불안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 (1997). 아동기 이후의 애착에 관한 최근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 '97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439-454.
- 전영민, 박영숙. (1997). 관계신념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 101-116.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Camelley, K. B., Pietromonaco, P. R., & Jaffe, K. (1994). Depression, working models of others,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127-140.
- Collins, N. L. (1996).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Implication for explanation, emotion,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810-832.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Davila, J. & Bradbury, T. N. (1995, November): *Adult attachment styles in newlywed marriag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Washington DC.
- Davis, W. L., & Phares, E. J. (1967). Internal-external control as a determinant of information-seeking in a social influence sit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35, 547-561.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81-291.
- Fiske, S. T., & Taylor, S. E. (1984). *Social cognition*.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Fraley, R. C., & Shaver, P. R. (1997). Adult attachment and the suppression of unwanted though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080-1091.
- Hammen, C. L., Burge, D., Daley, S. E., & Davila, J. (1995). Interpersonal attachment cognitions and prediction of symptomatic responses to interpersonal str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436-443.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Kirkpatrick, L. A., & Davis, K. E. (1994). Attachment style,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502-512.

- Lefcourt, H. M. (1966).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65, 206-220.
- Lefcourt, H. M., Martin, R. A., Fick, C. M., & Saleh, W. E. (1985). Locus of control for affiliation and behavior in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755-759.
- Lefcourt, H. M., Martin, R. A., & Saleh, W. E. (1984). Locus of control and social support: Interactive moderators of 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378-389.
- Mickelson, K. D., Kessler, R. C., & Shaver, P. R. (1997). Adult attachment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092-1106.
- Mikulincer, M., & Nachshon, O. (1991). Attachment styles and pattern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321-331.
- Mikulincer, M., & Orbach, I. (1995). Attachment styles and repressive defensiveness: The accessibility and architecture of affective mem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917-925.
- Miller, P. C., Lefcourt, H. M., Holmes, J. G., Ware, E. E., & Saleh, W. E. (1986). Marital locus of control and marital problem solv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61-169.
- Morris, D. (1982). Attachment and intimacy. In M. Fisher & G. Stricker (Eds.), *Intimacy*(pp.305-332). New York: Plenum Press.
- Phares, E. J. (1976). *Locus of control in personality*. Morristown, N. J.: General learning press.
- Pietromonaco, P. R., & Barrett, L. F. (1997).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and daily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409-1423.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 (Whole No. 609).
- Ruiter, C. (1994). Anxious attachment in agoraphobia an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 literature review and treatment implications. In C. Perris, W. A. Arrindell, & M. Eisemann(Eds.), *Parenting and psychopathology*(pp. 281-307). Chichester:Wiley.
- Simpson, J. A. (1990).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s o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71-980.
- Sternberg, R.J., & Barnes, M. (1985). Real and ideal others in romantic relationships: Is four a crow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589-1596.
- Strickland, B. (1974). The prediction of social action from a dimension of internal-external control.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6, 353-358.
- Watkin, D. (1978).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self-esteem measuring instru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2, 171-182.
- Weiner, B. (1985). An attributional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92, 548-573.

원고 접수일 2000. 10. 9.
수정 원고 접수일 2000. 11. 30.
게재결정일 2001. 1. 9.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Attachment Style - Focus on Cognitive Variables -

Kim, Ellen Sun Hee Oh, Kyung-Ja Park, Joong-Kyu Lee, Eun-Jung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Clinical Psychology
Inje University-Ilsan Paik Hospital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individual difference of adult attachment style and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adult attachment style in a survey study involving 356 undergraduate stud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quality and in cognitiv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each attachment style. Secure attachment style associated with greater relationship interdependability and intimacy than did the anxious-ambivalent or avoidant attachment style. Avoidant attachment style associated less with relationship interdependability than did the secure attachment style. Anxious-ambivalent attachment style associated with greater relationship anxiety than did the other attachment styles. Attachment dimensions were found to be related to relationship beliefs on intimacy and individuality, self-esteem, and locus of control. Compared with secure, avoidant styles, the anxious-ambivalent style didn't attribute positive events to more stable causes and tended to attribute negative events to more stable causes; they also attributed negative events to more global causes. Sugges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adult attachment style, relationship beliefs, self-esteem, locus of control, attributional style